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이끌게 된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고 첫 일정을 소화했다. 민 시장은 1일 오전 0시부터 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참석해 취임 선서를 한 뒤 무안청사와 동부청사, 광주청사 등 3개 청사를 오가며 통합 행보를 본격화했다. 사진 왼쪽부터 1. 취임 선서 2. 무안청사 공무원노조 사무실 방문 3. 동부청사에서의 1호 결재 4.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5. 광주청사 119종합상황실 방문 모습.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통합의 시대’ 첫발 내딛은 민형배 시장, 숨가쁜 일정

새벽 의회에서 역사적 취임 선서...의원들과 조찬 출근길 직원들과 인사...노조·출입기자실 방문 무안·동부·광주 청사 순회...‘24시간이 빠듯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이끌게 된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첫날부터 무안청사와 동부청사, 광주청사 등 3개 청사를 오가며 통합 행보를 본격화했다.

민형배 시장의 공식 일정은 전날 밤인 30일 오후 10시 40분 무안청사 도착과 함께 시작했다. 부지사와 부지사 등 10여명의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민 시장은 곧바로 9층 집무실로 이동해 영접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어 날을 넘긴 1일 오전 0시부터 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오전 2시를 넘겨 역사적인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낭독했다. 이날 취임식

에는 시의원 91명과 집행부 59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첫 출발을 지켜봤다.

민 시장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집무실에서 1호 업무 지시를 내리고, 반도체 산업 지원과 재난재해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관사에서 짧은 휴식을 취한 민 시장은 오전 7시 30분 무안청사 구내식당에서 시의회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가졌고, 이어 8시 20분 청사 내 윤선도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환영 인사를 나누며 본격적인 아침 업무를 시작했다.

집무실로 이동한 민 시장은 오전 8시 50분 사무 인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행복동에 위치한 공무원직 등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행

복소통실 내 무안민원발급기를 찾아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하며 시스템을 점검했다. 무안청사 일정의 마지막으 기자실을 방문해 언론사 기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오전 10시 무안청사를 떠난 민 시장은 약 1시간을 이동해 오전 11시께 동부청사에 도착했다. 동부지역본부장 등 6명의 영접을 받으며 청사에 입성한 민 시장은 곧바로 집무실에서 상징적인 ‘1호 결재’를 마쳤다.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는 동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상공회의소 전·현직 임원 등 지역 기업인 2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와 방안과 상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일정은 광주로 북귀해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화환을 헌화하고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민 시장은 오후 2시 30분께 광주청사에 도착해 시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청사 17층에 위치한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연이어 방문해 자연재난과과정과 상황실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으며 안전 관리 태세를 점검했다.

또 민원행정시스템 점검회의를 주관한 뒤, 중회의실에서 실국장 60여명과 상견례를 가졌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대통령 축하난을 가지고 방문한 우서영 행정관을 접견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오후 4시를 넘겼다.

광주청사 일정을 마친 민 시장은 오후 5시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이동해 방송사와 특별대담을 갖고,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도정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이동 중 차 내에서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한 민 시장은 이날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전남광주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5·18민주광장으로 향했다. 민 시장은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출범식에서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한밤중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취임 첫날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민형배, 1호 결재 ‘통합 100일 실행 계획’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등 8대 과제 첫 업무지시는 반도체·안전·민생

민선 9기와 함께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은 반도체와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1일 오전 0시 5분 개인용 특별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반도체 산업 지원, 재난 재해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계획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생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실을 중심으로 용수·전력·부지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 실국이 인재 양성과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민 시장은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특별시가 가뭄·홍수·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순천에 있는 특별시 동부청사에서 ‘민생 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을 제1호로 결재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출범 초기 100일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시민 체감형 통합 민생 지원, 제도·행정 체계 정비, 성장·균형 통합 실행력 확보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계획이다.

중점과제는 전남광주 지역화추진 특별할인, 생활권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운영, 생명망 하나로(응급환자 이송지원 제도), 조례 제·개정 법적 기반 정비, 새로운 성장체계 구축, 공공기관 정비·운영, 전남광주 에너지공사 설립, 균형 발전기금 설치·운영 등이다.

특별시는 오는 9월 한 달간 2000억 원 상당의 전남광주 지역화추진 추가 특별인원을 한다.

기존 10~12%였던 할인율을 5% 포인트 확대한다.

광역버스 5개 노선을 신설·연장하고, 거점 응급실 11곳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응급 의료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별시는 새로운 성장체계(CI·시민현장 등)를 100일 안에 마련하고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거쳐 기능 조정과 통합 범위를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김대중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본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별도의 취임식 갖지 않고 AI·에너지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목포공업고등학교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으며 아침 간식을 전달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대중 교육감 “세계가 배우러 오는 K-교육특별시 도약”

취임식 대신 학교 현장 찾아...단계적 교육통합 추진 민주주의 교육·책임교육·교육메가시티 비전 제시

김대중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가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첫 본회의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전남광주특별시의 새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수도권 교육을 뒤쫓지 않겠다”며 “지역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온 역사의 중심”이라며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더욱 깊이 있게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며 “춤추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지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의 행

정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자율과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교육”이라며 “지방자치 단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500만 교육메가시티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령하고 안전한 교육행정을 통해 교직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안심하며, 학생들은 ‘전남광주에서 교육 받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 대신 현장을 찾았다. 오전에는 AI·에너지 마이스터고

로 선정된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굣길을 함께했고, 이어 원도심 작은 학교인 광주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가족들과 소통했다.

오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AI교육원 구축해 500만 교육메가시티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2028년 이후 고도화 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특별시교육청 출범...‘초광역 교육행정’ 개막 연 예산 7조2666억원·학생 36만명 규모

대한민국 최초의 초광역 교육행정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한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합한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초광역 교육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통합교육청은 학생 36만2648명(2025년 4월 1일 기준), 학교 1914개를 관할한다. 학생 수는 경기·서울·경남에 이어 전국 네 번째 규모다.

연간 예산은 7조2666억원(전남 4조4410억원·광주 2조8256억원)에 달하며, 교원 3만1329명, 교육전문직 823명, 일반직 7232명, 교육공무직 1만2048명 등 모두 5만1431명이 근무한다.

조직은 통합 초기 행정 안정성을 고려해 법정 기준보다 확대된 1실 6국 체제로 운영된다. 정책과 교육, 행정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초광역 교육행정에 맞는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교육감을 맡은 김대중 교육감은 ‘K-교육특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교육 혁신에 나선다.

핵심 정책은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 산업으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지산지소’ 실현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AI와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 유입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500만 메가시티를 이끌 10만 인재 육성, 성장 중심 교육체계 구축,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 조성, 학생수당 도입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의 AI·디지털 인프라와 전남의 생태·농산어촌 교육 자원을 연계해 미래 교육 환경도 강화한다.

통합교육청은 출범 초기 인사와 조직, 재정, 전산 시스템 등 두 교육청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